



“環境汚染에 對한
國民걱정 줄여야”

許南薰 新임환경처장관
弘報문제등 強調

9월 19일 하오 許南薰신임환경처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그간의 공직생활경험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날로 심각해가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許장관은 「장기적으로 근원적인 환경정책은 간부들과 협의해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하고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 쾌적한 환경욕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어 이의 해결은 어렵고도 심각한 과제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정책을 순조롭게 뒷받침하기 위해선 홍보와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환경공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기반 조성투자의 긴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環境處

公害排出부과금 대폭 引上

내년 2월 最高 4백만원 「기본부과금」 신설

환경처는 21일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공해배출부과금제도를 전면개편해 ▲최하 50만원에서 最高 4백만원까지 기본부과금을 신설, 위반업소의 부담을 높이고 ▲허용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에 적용하는 最高 9배까지의 부과금가중계수를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새로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기본부과금제도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1종 4백만원 ▲2종 3백만원 ▲3종 2백만원 ▲4종 1백만원 ▲5종 50만원씩 물린다.

九老工團 주변 鐵부식도 平昌의 12.6倍
환경처 3개월간 조사·電鐵事故原因 밝혀

서울 九老공단 주변 대기의 아황산가스 오염이 심

해 대기오염이 거의 없는 江原道 平昌郡지역보다 철부식도가 1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가 九老전철역 주변의 잦은 전철선 단절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九老공단 주변인 加里峰전철역 앞과 주거지역인 佛光洞 및 산림지대인 江原道 平昌郡 등 세곳에 두께 1.2mm의 철판을 설치, 아황산가스에 의한 부식도를 처음 시험한 결과 加里峰洞은 0.341mm가 부식돼 佛光洞의 0.067mm보다 5배, 平昌郡의 0.027mm보다 12.6배나 부식이 심했다.

貯水池水質오염 심각해

柳順昊 교수팀 조사, 坡州 등 農業用水로도 不適

京畿道 파주 이천, 忠南 홍성 연기 등의 일부 저수지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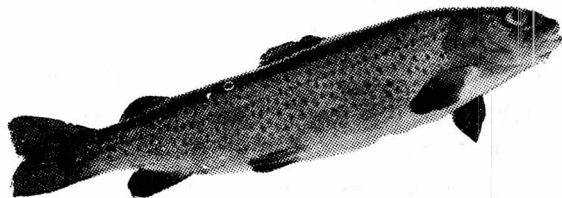
서울대농대 柳順昊 교수와 국립환경연구원 徐胤洙 부장팀이 21일 서울대에서 열린 환경오염과 농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수질과 토양오염실태」에 따르면 농업토목시험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33개 지점에서 농업용수의 水源을 조사한 결과, 京畿道 파주군 회정보동 8개 지점의 보 및 저수지 수질이 농업용수로 쓸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9.22. 每經)

〈천연기념물〉

滅種위기 熱目魚 養殖성공

강원도 內水面 試驗場서 放流계획도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三陟군 근덕면 초당리·장장 李一男·48)은 멸종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 熱目魚(연어과)의 양식을 위해 87년 4월 치어 1백



70마리를 3년5개월동안 길러 이중 88마리를 30cm크기로 키우는데 성공했다.

시험장은 오는 11~12월 어미고기에서 1만여개의 알을 받아 인공부화시켜 일부는 멸종된 河川에 방류하고 일부는 인공사육할 계획. 앞으로 증식을 거듭해 일반양어가에도 보급, 새로운 내수면 어종으로 육성할 것이라 한다. 열목어는 눈에 열이 많아 수온이 18도를 넘지 않는 깨끗한 산간계곡에서만 서식하는 冷水性어족으로 물속의 유충류와 수서곤충류를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 물고기. 알은 약 1개월만에 부화되며 월동전까지는 6~7cm가 되며 3~4년이며 30cm가 넘는 성어가 되고 큰 것은 1m를 넘는 것도 있다. 李一男장장은 「자연산 열목어를 양식용으로 길들이는데 성공했으니 앞으로 인공종묘생산을 추진하게 되는데 내수면 양식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9.20. 조선일보)

모감주나무 群落地발견

—수령 2~3백년생 2백여 그루 자생—
국립공원 月岳山계곡서 보호책시급

우리나라 해안지방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138호 모감주나무가 내륙지방인 忠北 堤原郡 寒水面 松界里 月岳山계곡에서 대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忠北大 임학과 金洪殷교수(49)팀은 6월 19~20일 月岳山일대 식물분포조사를 하던중 해발 6백~7백m 산중턱 계곡에서 수령 2백~3백년으로 추정되는 높이 6~10m의 모감주나무 2백여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金교수는 『해안지방에서만 자라는 이 나무가 내륙에서 대규모로 군락을 이뤄 발견된 것은 식물의 분포와 생태학적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되며 적어도 2백~3백년생 되는 거목으로 보아 옮겨심은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자생한 것이 틀림없다며 군락지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감주나무는 中國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忠南 安眠島를 중심으로 서해안일대에 자생하고 있으나 희귀종이어서 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충청일보 90. 7. 3)

壬亂때의 僧兵將

「靜觀大師」부도 발견

—속리산 관음절터 2백여m 지점서—

서산대사의 제자이자 승병장이었던 靜觀大師(서기 1533-1608)의 부도가 속리산 관음암 절서 북쪽 2백여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속리산 향토문화연구 및 자연보호회(회장 박남식)가 발견한 이부도는 정면에 「靜觀大師塔」이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높이가 167cm, 밑부분 둘레가 170cm 중간둘레 270cm로 石鍾型의 부도인데 원래위치에서 30여m 아래쪽에서 굴러떨어진채 발견돼 이미 오래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靜觀大師는 中宗 4년에 태어나 15세에 불가에 입문, 서산대사의 제자였으며 백하 신운스님으로부터 법화경을 전수받았으며 법명은 一禪으로 임진왜란시는 승병장으로 활약한 것으로 기록이 전해진다(충청일보 90. 9. 4)

智異山 老姑壇, 공중전화 개통

全南 求禮군 전신전화국은 해발 1천5백47m의 智異山 老姑壇정상에 등산객들을 위한 DDD공중전화를 가설, 지난 5월2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老姑壇 산장과 姓三峙안내소에 전신전화 취급소를 개설 운영해 온 求禮전화국은 사업비 1억8천만원을 들여 전화국과 老姑壇 사이에 무선 시설 보완공사에 착수 이날 완공을 보게된 것인데 국제통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求禮전화국은 또 해발1천2m인 姓三峙주차장 공사가 오는 연말까지 완공될 경우 이곳에도 공중전화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光陵에 野生動物園

—산림청林業시험장에 92년까지 완공—

光陵林業시험장에 대규모 야생동물원이 들어선다.

산림청은 지난 5월25일 92년까지 광릉임업시험장에 1백ha규모로 아프리카, 케냐의 동물왕국과 같은 국내 최대의 야생동물원을 조성, 호랑이 멧돼지 고라

니등 5백여종의 야생동물들 자연상태로 방사시켜 각종 연구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광릉임업시험장은 천연기념물인 크낙새가 서식할 정도로 천연조건이 뛰어나며 조선시대 초기부터 조성되어 내려오는 국내에서 가장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 야생동물원이 들어서게 되면 멸종되어가는 각종 야생조수류의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90.5.26)

망개나무 群落地 발견

6월18일 속리산에서, 천연기념물207호
朴璟洙 本會 속리산서부 지부장

해발 600m 이상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천연기념물 207호 망개나무 군락지(群落地)가 지난 6월18일 내속리면 중판리(안터골)산 중턱 400m에서 박경수씨(57. 국립공원협회 속리산서부 지부장)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망개나무는 크기 2~5m의 10~30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20여그루의 자생 군락지이다.

그동안 속리산 일대에서 발견된 망개나무는 1968년 천연기념물 207호로 지정된 내속리면 사내리 산 1의 1번지의 망개나무를 비롯, 천왕봉밑 350년생의 망개나무, 공원매표소앞 남산 망개나무 등이 있다.

박경수씨에 따르면 “망개나무는 일정(日政) 당시 만해도 태백산, 소백산, 일본 후지산에만 군생하다, 현재는 태백산과 일본 후지산의 망개나무는 고사(枯死)하고 소백산권에서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년부터 조금씩 속리산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속리산 전역이 망개나무 자생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망개나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망개나무 껍질을 달여 먹으면 수태할 수 있다는 속설에 따라 수난을 겪고 있고, 나무성질이 까다로워 전문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은신문 90.6.22)

수도물 여과池 重金屬투성이

飲用기준 248배 넘기도, 10개 淨水場서 다량검출
주먹구구식 정수약 투여하는 곳도...

지난 7월3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상수도 정수장가운데 서울의 세 곳을 비롯 釜山 화명, 大邱 다사, 富平, 水原 광교, 沃川, 석성, 金堤 김산등 10개 수원지의 여과지에서 비소 수치를 비롯 6가크롬, 구리, 철, 망간, 납, 아연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음용수 수질기준의 최고 2백배까지 검출됐다.

환경연구원은 지난해 8월 수도물 파동직후 전국 1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여과지 중금속을 조사했는데 그가운데 이들 정수장의 여과지 표면에 찌꺼기가 쌓였거나 여과사(모래, 자갈) 사이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진흙덩어리(머드 블)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木浦 몽탄정수장은 여과사층의 두께를 설계보다 28.5cm나 얇게(65cm→36.5cm)까는등 5개 정수장이 설계기준보다 여과사층의 두께가 부족했다.

특히 水原 광교정수장·永登浦정수장은 여과지 세척수와 수세식변소·샤워장·식당등 부대시설의 오수를 잘못 흘려보내 원수에 혼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약품도 소석회·황산동·활성탄등 세종류는 규격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水原광교정수장등 6곳은 취수량을 측정하지 않고, 鷲梁津정수장등 12곳은 원수의 수질상태에 따른 정수약품 투입량을 조사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정수약품을 투여해왔다. (중앙일보 90.7.3)

智異山에 솔부엉이, 황조롱이 서식

경남도 林業시험장, 희귀조류 실태조사

국립공원 智異山에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솔부엉이(324호)가 처음 확인됐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바위종다리 큰오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들평등 희귀조류들이 적잖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慶南도 임업시험장 崔在植연구사등 7명의 조사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88년 10월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1년8개월동안 실시한 智異山 희귀조류서식 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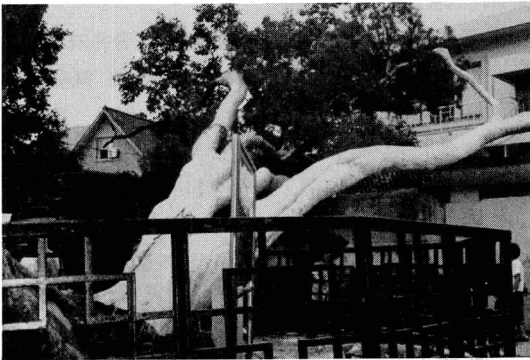
이들 조사팀은 천연기념물 보호조 솔부엉이가 해발 850m의 順頭流에서 1마리 황조롱이는 해발 1,400m 法界寺근처 나무숲속에 암수 1쌍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또 희귀조류인 바위종다리는 해발 1,700m 개선문일대에서 13마리가 큰오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는 順頭流~法界寺일대 수림에서 3마리, 흰눈썹황금새는 順頭流일대 수림에서 2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일보 90.7.10)

천연기념물 6백살白松 쓰러져

지난 7월17일 서울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 주택가 길목에 있는 수령 6백년의 천연기념물 제 4호 白松나무가 오후 6시35분경 뿌리채 뽑히면서 쓰러졌다.

높이 16m 양쪽 줄기둘레가 각각 3.6m, 3m인 이 백송은 지난 6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 4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왔다.



폭우로 쓰러진 鍾路區 通義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4호인 白松 (본회편집실 촬영)

南海岸도서 희귀植木 멸종위기

—동백등 불법採取, 관리소홀로—

남해안일대 도서낙도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천연기념물인 팔손이 나무를 비롯 동백, 후박жат밤나무등 희귀식물들이 관리소홀로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손이 나무는 통영군 한산면 비진리 내항마을이 자생지로 閑山島일대와 欲知島국도에 분포되어 있고 잣밤나무는 欲知도, 每勿도, 후박나무는 每勿도와 산양면 우도등에서 자생하고 있다. 또 동백나무는 한산면 매죽리 옥지면 노대

리 사랑면등 군내 전도서지역에 분포되어 집단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희귀수목자생지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채취꾼들에 의해 수난을 당해 팔손이 동백나무 등은 멸종위기를 맞고있다. (경남신문 90.7.25)

臨津江유역서 最古石器제작장 약 30~10만년전 遺蹟으로 推定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석기제작장이 발견됐다.

문화재연구소 유적발굴조사단(단장 趙由典)은 16일 京畿道 坡州郡 坡平面 金坡里 158의 3 임진강유역에서 박편(剝片)·모암(母岩)·석편등 4백여점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석기제작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유적은 약 30만~10만년전의 것으로 추정돼 전국리 구석기유적과 더불어 한탄강·임진강유역에 살았던 고인류의 생활양식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지역은 지난해 10월 1차조사당시 국내 최고의 야외주거지와 주먹도끼등 6백여점의 유물이 발견된 곳에서 2백여m 떨어진 곳이다.

白頭山에 식물 1천7백種 서식

—우는 토끼등 동물도 1천2백種이나—

白頭山에는 모두 212科 751屬 1천2백22종의 동물들과 약 1천7백여種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의 경우 하등무척추동물들인 골뱅이류, 갑각류, 거미류, 진드기류, 다족류들이 37科 62속114종이고 고등무척추동물인 다랭이류, 톱톡벌레류, 하루살이류, 잠자리류, 사마귀류, 돌미끼류, 메뚜기류, 벌류 등등 각종 곤충류들이 1백6과 541속 868종이며 그리고 척추동물들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들이 69科148속 240여종인 것으로 됐다고 한다.

이번 탐험에서는 백두산일대가 동물의 수직적 분포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해

밭 1천m까지는 별특징이 없으나 그 이상 지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

▲해발 1천3백~1천7백m : 긴꼬리올빼미 · 까막딱따구리 · 작은 알락딱따구리 · 작은 박새 · 노랑허리술새 · 긴꼬리 오목눈 등

▲해발 1천7백~2천m : 말사슴 · 산양 · 멧닭 · 숲종다리 · 제비딱새 등 ▲해발 2천m 이상 : 바위종다리 · 우는 토끼 · 쥐류 · 갈새 등

공해단속공무원 司法權부여

자연공원 66곳 11월부터 취사금지

內務部등 각 관련기관 合同으로

내무부는 환경오염단속에 나서는 市郡區공무원에게 가스총을 휴대시키고 사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국립공원등 전국의 자연공원 66개소는 오는 11월부터 국민관광지 108개소는 내년 4월부터 각각 취사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고 자연공원내에서 오염이 심한 계곡이나 산정상들은 시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3년간씩 출입을 금지시키는 「자연휴식년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 단속내용을 보면 거리별, 마을별, 구역별로 단속책임제를 실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도시주변 시골에 쓰레기나 공해물질을 갖다버리는 행위나 공해배출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는 복장과 휴대시키는 한편 사법권을 부여 자연환경과피사범을 강력히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내무부와 건설부, 환경처, 산림청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히 실시하리라 한다.

MBC-TV “智異山을 되살리자”

9.1. 노고단서, 暴雨중 기획프로强行

MBC-TV는 「지리산을 되살리자」 주제의 지리산 국립공원보존을 기획프로가 9월1일(土) 오전 8시5분부터 11시까지 전국에 생방송계되었다. 때마침 폭풍우가 쏟아진 가운데 진행된 이 「프로」에는 건설부 孫鶴來 자연공원과장, 본회측서 文莊寅부회장, 安元泰 부설자연공원연구소장, 李景宰박사(학계회원 · 서울시立大 교수), 禹鍾秀 지리산南部 지부장이, 관리공단측에서는 朴萬澈 본부운영부장, 崔元範 지리산남

부관리소장이 등장했으며 피아골산장을 경영하는 威泰式씨(전 · 남부지부장)도 늦게 도착하여 참가했다.

新種植物 「긴잎쇠물푸레」 발견

一環境處 5년간 生態系 조사결과—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동식물은 1만 5천 9백 40種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9천 7백 18종은 동물이고 6천 2백 22종은 식물이다. 그러나 호랑이를 비롯 민물에 사는 종어와 서호납줄개, 원앙사촌(鳥類), 식물인 물솔, 파초일엽, 매화마름 등 동식물은 완전 멸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처가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관계전문가 등 1천1백여명을 참여시켜 실시한 전국 자연생태계 일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중에는 곤충류가 7천 3백종으로 가장 많고 어류가 1천 3백종으로 다음이며 鳥類 397종 집계, 개류 213종, 거미류 126종, 포유류 109종, 새우류 79종, 해면류 57종, 해조류 52종, 히드라류 42종, 파충류 27종, 양서류 14종으로 밝혀졌다.

식물가운데는 管束식물이 4천 1백 65종으로 단연 으뜸이며 담수 藻類 955종, 버섯류 523종, 해조류 293종이나 된다.

특히 이번 일체조사에서 조사받은 긴잎쇠물푸레식물의 新種을 발견했으며 지금까지 국내기록에 없었던 삼협조, 마가레트구절초, 분홍큰좁쌀풀, 난장이대 등 4종의 식물을 찾아내기도 했다.(서울신문 90. 10. 5)

스포츠서울 「한국의 野生花 探查팀」

'90 「韓國新聞賞」 받아

한국신문협회는 90년도 「한국신문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전역을 현장 탐사, 야생화의 생태를 보도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인 스포츠서울 「한국의 야생화대탐사」 취재팀(李香順 徐炳基 金錫奎)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월 15일 오후 3시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